

Morning Meeting Notes

2026-07-21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마켓픽 -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레벨이 아닌 방향성

주식시장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 중국 키미K3 공개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 확대.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조정 지속. 미-이란 전쟁 리스크도 겹치며 리츠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부진. 한편, 외국인은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을 약 9,800억 순매수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이날 증시는 전강후약 형태의 흐름을 보임. 장 초반, 휴전 기대감 및 기술주 위주의 수급 흐름으로 3대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장 후반 미-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되살아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 업종별로는 의료건강이 1% 이상 하락

금리&환율

국고채 금리는 상승 마감. 미국-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인플레이 우려 확대 및 금주 국내 2분기 GDP 경제감에 약세
미국채 금리는 상승 마감. 중동 리스크 불안 속,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 여기에 영국 버넌 총리의 '유동성' 언급이 재정 지출 확대 우려 자극하며 gilt 수익률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침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0원 하락한 1,478.40원에 마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 자금 환전이 원/달러 하락세를 견인
달러인덱스는 100.96로 상승.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 선언에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달러는 이에 연동되어 강세 양상

주요뉴스

트럼프, 네타냐후는 체포되지 않을 것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은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어떤 경우라도 체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New Publications

[선진국 전략] 미국 장단기 전략 - 1Q27 S&P 500 Target 9,000pt(2026-07-03)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AI/로보틱스] 일본 기업 방문 후기 - Bottleneck 해소에는 시간 필요(2026-06-24)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AI/로보틱스] 대만 Computex 방문 후기 - Agentic AI가 AX 견인(2026-06-10)
[경제] 20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기호지세(騎虎之勢) - Ride With Us or Collide With Us(2026-06-02)
[주식전략] 2026년 하반기 주식전략 전망: AI 압축 포트폴리오로 돌파하라(2026-05-29)
[전기전자/디스플레이](OVERWEIGHT) 2026년 전기전자/디스플레이 하반기 전망 - 아직 Peak는 오지 않았다(2026-05-29)
[건설](OVERWEIGHT) 2026년 건설업종 하반기 전망 SCREENING(2026-05-28)
[자산배분] 하반기 자산배분 전략 - 한국 주식 중심, 채권은 캐리 중심 대응(2026-05-26)
[투자전략] 2026년 하반기 투자전략 전망: 기호지세(騎虎之勢) - Ride With Us or Collide with Us(요약)(2026-05-26)
[음식료/화장품](OVERWEIGHT) Glow Beauty, Select Food(2026-05-22)
[자동차/모빌리티] (OVERWEIGHT) 전략적 실용주의, Legacy의 China Speed를 대응하는 생존형 Pivot(2026-

Rating, Target Price Changes

한화에어로스페이스	BUY	1,780,000 원	▷ BUY	1,390,000 원 (2026-07-16)
현대차	BUY	950,000 원	▷ BUY	630,000 원 (2026-07-15)
기아	BUY	210,000 원	▷ BUY	200,000 원 (2026-07-15)
현대모비스	BUY	810,000 원	▷ BUY	690,000 원 (2026-07-15)
현대위아	BUY	110,000 원	▷ BUY	85,000 원 (2026-07-15)
현대글로비스	BUY	300,000 원	▷ BUY	270,000 원 (2026-07-15)
현대오토에버	BUY	730,000 원	▷ BUY	610,000 원 (2026-07-15)
HL만도	BUY	73,000 원	▷ BUY	67,000 원 (2026-07-15)
한온시스템	M.PERFORM	4,700 원	▷ M.PERFORM	3,900 원 (2026-07-15)
SNT모티브	BUY	48,000 원	▷ BUY	38,000 원 (2026-07-15)
삼성E&A	BUY	75,000 원	▷ BUY	61,000 원 (2026-07-14)
풍산	BUY	138,400 원	▷ BUY	93,700 원 (2026-07-14)
세아베스틸지주	BUY	90,500 원	▷ BUY	45,200 원 (2026-07-14)
현대제철	BUY	55,900 원	▷ BUY	38,500 원 (2026-07-10)
LG전자	BUY	140,000 원	▷ BUY	260,000 원 (2026-07-08)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SK하이닉스	611,120	S-Oil	87,898
삼성전자	285,162	현대차	83,799
삼성전자우	122,068	KB금융	79,418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17,780	SK스퀘어	62,955
KODEX 200	116,981	KODEX 200선물인버스2X	60,782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한화오션	-50,715	SK하이닉스	-1,867,052
삼성전기	-50,242	삼성전자	-718,151
원익IPS	-49,465	KODEX 200	-145,174
현대차	-35,263	KODEX 레버리지	-137,754
KODEX 200선물인버스2X	-31,378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27,010

국내시장 동향	증가	D-1(%)	D-20(%)
KOSPI	6,516.27	-4.46	-28.51
대형주	7,147.22	-4.51	-29.63
중형주	3,742.30	-4.13	-13.24
소형주	2,196.47	-2.96	-7.37
KOSDAQ	749.64	-5.33	-22.59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3,490	5,272	-9,235
누적순매수(D-20)	352,404	-398,489	32,227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 단위 :억 원)	335,670	336,359	495,694

업종별 지수	증가	D-1(%)	D-20(%)
건설	134.18	-4.29	-21.12
금융	1,103.39	-4.59	-17.65
운수장비	4,873.99	-5.75	-23.03
유통	584.25	-6.27	-26.72
음식료	4,583.46	-0.85	+2.10
의약품	14,414.10	-3.11	+1.30
전기전자	105,184.80	-4.43	-34.77
철강금속	6,016.94	-5.06	-15.33
화학	4,339.18	-3.47	-4.14
유틸리티	1,011.56	-2.85	-11.77
통신	593.41	-2.19	-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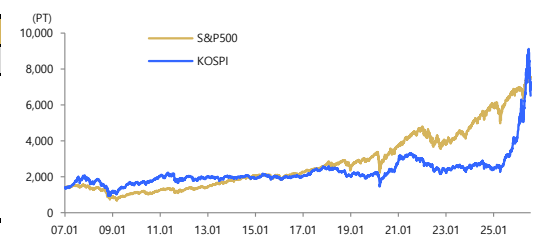
해외시장 동향	증가	D-1(%)	D-20(%)
S&P500	7,443.47	-0.19	-0.39
NASDAQ	25,508.07	-0.05	-2.52
일본	64,141.12	(휴장)	-11.35
중국	3,796.28	+0.85	-8.81
독일	24,846.69	+0.06	-1.23

주요 금리 동향	증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3.90	+4.70	+8.50
국고채 (10년)	4.34	+3.90	+14.10
은행채AAA (3년)	4.26	+4.50	+10.90
미국국채 (2년)	4.21	+2.85	-1.85
미국국채 (10년)	4.59	+4.40	+8.25

환율 동향	증가	D-1(%)	D-20(%)
원/달러	1,478.40	-0.01	-3.81
원/백 엔	909.75	-0.65	-4.39
원/위안	218.34	-0.42	-3.76
달러/유로	1.14	-0.21	-0.13
위안/달러	6.77	-0.22	-0.11
엔/달러	162.48	+0.05	+0.58
Dollar Index	100.96	+0.21	-0.03

상품시장 동향	증가	D-1(%)	D-20(%)
WTI (usd/barrel)	83.23	+0.90	+11.24
금 (usd/oz)	4,010.55	+0.28	-4.38
BDI	2,671.00	-2.94	-1.87
천연가스(NYMEX)	2.86	-1.75	-12.08

KOSPI, S&P 추이



본 조서지표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켓픽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레벨이 아닌 방향성

주식 시장 반등 위해서는 유가 피크아웃 신호 포착 필요

최근 미국과 이란간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자산 가격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7월 20일 브렌트유 9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배럴당 89.22달러로 지난 6월 11일 이후 처음으로 90달러선에 근접했다. 미국채 10년물, 미국채 30년물 금리도 각각 4.5%, 5.0% 선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난 3월말에 근접했던 120달러에 수준에 비해서는 30달러 낮은 수준이고(그림1), 미국채 금리도 지난 5월 중순 대비 낮아진 상황이다(그림2). 그럼에도 국내 주식 시장은 중동 불확실성에 이전보다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 주식 시장이 중동 불확실성에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유가와 금리의 방향성이 우상향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레벨 보다 방향성이다. 지난 7월 이후 이란의 발포와 미국의 보복 공습이 시작된 가운데, 17일 요르단 기지에서 미군 사망 소식은 향후 협상보다 전쟁 가능성이 높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유가는 90달러 수준으로 지난 3월 대비 낮지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향후 유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란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3월말 유가가 고점을 기록한 이후부터 코스피는 반등하기 시작했다(그림3).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시장은 유가 레벨보다는 유가가 언제 피크아웃 할 것인지에 주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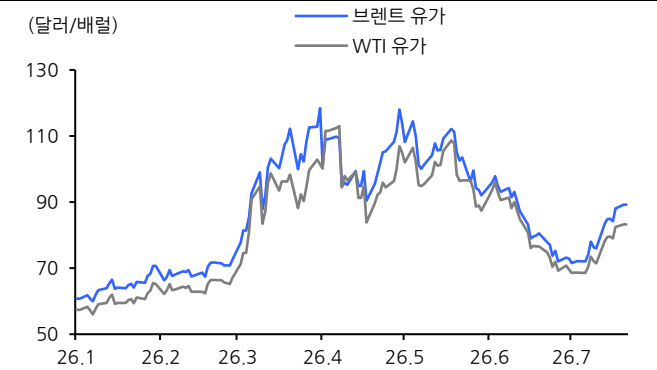
둘째, AI 강세 내러티브 훼손에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술주의 금리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 지난 3월에는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사이클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확고했다. 현재는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AI 강세 내러티브가 훼손된 상황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부채에 의존하는 기술주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한다. 오라클의 CDS 스프레드는 지난 3월 대비 확대되었다(그림4). 시장은 AI 관련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지난 3월 대비 크게 보고 있다.

셋째, 연준의 통화정책이 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유가는 12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시장은 이를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하 횟수 축소 요인으로 반영했다(그림5). 반면 현재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작은 반등에도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요인으로 반영하고 있다(그림6).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횟수 감소보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더 민감하게 반영한다.

중동 불확실성 재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유가의 피크아웃 신호가 포착되어야 한다. 유가에서 중요한 것은 레벨이 아닌 방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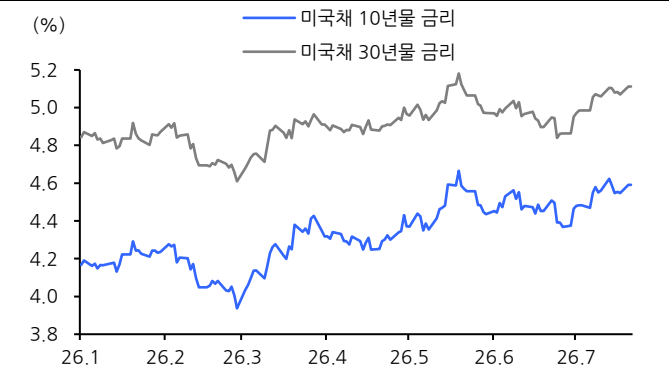
Strategist 김재승
jaeseung.kim@hmsec.com

〈그림 1〉3~5월 대비 낮아진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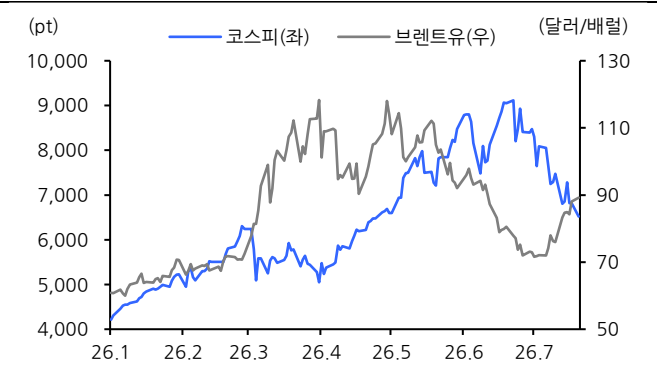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2〉미국채 금리도 5월 고점 대비 소폭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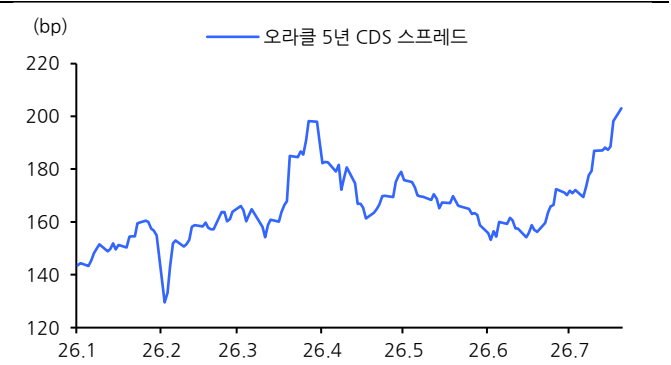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3〉유가 레벨이 아닌, 변곡점이 주가 반등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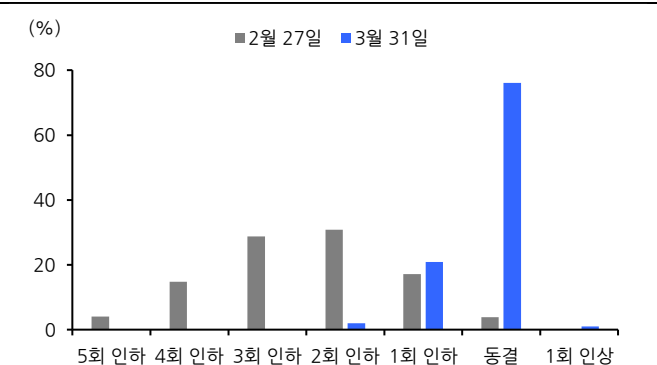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4〉오라클 CDS 스프레드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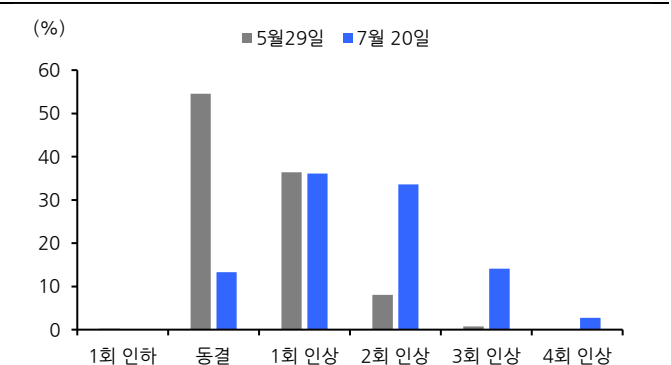
자료: 블룸버그, 현대차증권

〈그림 5〉3월 유가 상승은 연준 금리 동결 확률 높였지만



주: CME 그룹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프라이싱 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
자료: CME Group, 현대차증권

〈그림 6〉6~7월 유가 상승은 연준 인상 확률 높이는 중



주: CME 그룹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프라이싱 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확률
자료: CME Group,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